

인종 차별과의 싸움을 진전시키다

2025년 2월 21일 미디어 문의

앨버타 주 정부는 인종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포용적인 주를 만들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앨버타 이민 및 다문화부는 두 번째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인종 차별에 맞서고 다양성을 기념하며 앨버타 반인종주의 실행 계획에 명시된 권고 사항의 이행을 진전시키기 위해 취한 수많은 정부 조치들을 강조했습니다.

2022년에 발표된 앨버타 반인종주의 실행 계획에는 3년 동안 시행되어야 할 28개 권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28개의 개별적인 조치들이 명시되어 있지만, 각 조치의 업무 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8개의 구체적인 권고 사항들이 진행되었고, 그 중 27개의 권고 사항들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도적 장벽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룬 상당한 진전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정부의 조치는 더욱 환영하는 주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무함마드 야신 (Muhammad Yaseen), 이민 및 다문화부 장관

보고서에 명시된 성과에는 앨버타 반인종주의 자문 위원회와 다문화주의에 관한 주 수상 위원회의 지속적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앨버타 주 최초의 흑인 자문 위원회를 설립한 것이 포함됩니다. 이 위원회들은 반인종주의 및 문화 협력 노력의 기초가 되는 피드백과 통찰력을 얻기 위해, 지역 사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들의 활동 이외에도, 2024년에 민족 문화 보조금 프로그램은 문화 간 인식을 증진시키는 182개의 프로젝트에 51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반인종주의 보조금 프로그램은 49 개의 반인종주의 이니셔티브에 42 만 4 천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본 위원회는 실행 계획의 진전 및 공공 교육, 지역 사회 역량 강화, 데이터 및 측정, 제도 변화, 증오 사건에 대한 조치를 통해 인종주의에 맞서 싸우려는 주 정부의 노력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종주의와 포용은 여전히 우리 주의 핵심 문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본 위원회는 실행 계획에 따라 추가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니아 초드리 (Sania Chaudhry), 앨버타 반인종주의 자문 위원회 공동 의장

인종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행 계획이 수립된 이후, 모든 부처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노인, 지역 사회 및 사회 서비스부가 작년에 취한 조치들은 원주민 및 메이티 단체들이 제도적, 사회적 장벽을 파악하고 해결하며 저렴한 주택 지원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저렴한 주택을 이용하고자 할 때 차별을 받을 수 있고, 이용 가능한 주택 옵션이 그들의 필요에 항상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 주택 자본 프로그램을 통해 원주민 정부 및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주택이 지역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이슨 닉슨 (Jason Nixon), 노인, 지역 사회 및 사회 서비스부 장관

원주민 관계부는 원주민 교육, 고용, 응급 보호소, 의료 서비스 개선, 문화적 인식 증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를 시행함으로써,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앨버타 주 정부는 주 전역의 제도적인 편견과 인종주의를 해결함으로써,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실행 촉구 사항들을 존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업무를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원주민 지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정책과 프로그램에 원주민의 관점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릭 윌슨 (Rick Wilson), 원주민 관계부 장관

앨버타 보안 인프라 프로그램 (ASIP)은 보안 평가, 보안 인프라 개선, 교육, 장비 및 즉각적인 보안 대응 조치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증오 또는 편견에 기초한 폭력의

위험에 처한 종교 기반 단체들 및 지역 사회 단체들을 지원합니다. 혐오 정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앨버타 주의 이슬람 및 유대교 기반 대안 학교들과 아랍어 이중 언어 프로그램을 포함하기 위해, 2025년 말까지 이 프로그램 대한 지원 자격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앨버타 주의 증오 범죄 조정 부서는 교육 기회, 기관 간 정보 수집 및 수사 지원을 촉진하여 증오에 기반한 사건을 줄이고 대응할 수 있도록, 주 전역의 법 집행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왔든, 앨버타 주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지역 사회에서 안전하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괴롭힘과 기물 파손 행위는 우리의 거리, 학교, 예배 장소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앨버타 주 정부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근절하고 모두를 위해 보다 안전한 지역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마이크 엘리스 (Mike Ellis), 공공 안전 및 응급 서비스부 장관

또한 앨버타 교육부는 영어와 문학, 사회, 체육, 웰니스를 포함한 모든 교과목과 학년에서 반인종주의, 다원주의 및 관련 주제들을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 과정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은 학교에서 환영받고, 존중받으며,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육 과정은 학생들에게 캐나다와 세계의 다양성을 탐구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유치원-6학년 사회 과목 교육 과정은 인종주의, 이슬람 혐오, 반유대주의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오스 니콜라이디스 (Demetrios Nicolaidis), 교육부 장관

앨버타 주 정부는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보다 환영하는 주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조치와 이니셔티브를 통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정부 부처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약 정보

- 앨버타 반인종주의 연례 보고서는 5 가지 주제에 따른 정부 조치들을 다룹니다:
 - 공공 교육/문화 인식
 - 제도적 개선을 위한 촉매제로서의 정부
 - 지역 사회 역량 강화

- 중요 사건 및 범죄에 대한 대응
- 데이터 및 측정
- 2023년 12월에 발간된 앨버타 반인종주의 실행 계획의 첫 번째 연례 보고서는 25개 부처들이 취한 26개 조치들을 강조했습니다.
- 앨버타 반인종주의 자문 위원회는 인종주의에 대한 통찰력과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201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위원회의 48개 권고 사항들은 앨버타 주의 반인종주의 실행 계획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관련 정보

- [인종주의에 대한 조치 취하기: 모멘텀 구축하기](#)
- [민족 문화 보조금 프로그램](#)
- [반인종주의 보조금 프로그램](#)
- [앨버타 보안 인프라 보조금](#)

관련 뉴스

- [인종주의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로드맵, 앨버타 주의 반인종주의 계획 \(2022년 7월 18일\)](#)

미디어 문의

[닐 싱 \(Neil Singh\)](#)

780-644-2212

언론 비서관, 이민 및 다문화부